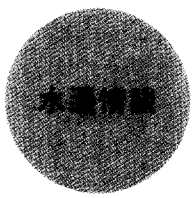

# 만 남

김 상 용
(수필가, 우효섭 회원의 부인)

아무리 보아도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창 밖의 풍경은 참 좋다. 거실 정면을 향해 넉넉한 아주머니 치맛자락을 이은 듯한 남한산이 늘 그 푸근함으로 우리를 맞이한다. 일부러든 건성이든 나의 시야가 그 곳에게 머무를 적엔 그 순간이나마 가득 찬 머리와 마음이 산뜻해지는 듯한 이 매력!

그럴 즈음 문득 학창 시절 교과서에 실린 한 작가의 글이 떠오른다. 어렴풋이 기억나기로는 요산요수(樂山樂水)란 주제로 '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질고 인자(仁慈)하며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다'는 내용이었다. 순간 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조화처럼 인자함과 지혜를 겸비한 온전하고 아름다운 그 분, 사람이면서도 신이었고 신이면서도 사람이신 조화와 온전의 극치이신 그 분이 그리워진다. 아니 그런 분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, 그 것도 어렵다면 닮아 가려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망한다.

하여 그리움의 대상을 찾기 위한 작은 여정은 시작되었다.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. 동구 밖을 지나 하남 시가를 가로지르면 팔당대교에 이르는 활주로 같은 대로가 펼쳐진다. 다리 양옆으로 강물은 흐르고, 나는 물줄기를 제치며 오른쪽 강 상류를 향해 차를 몰았다. 하얗게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인생이여! 앞서 떠날 때의 흥분의 날개는 어느덧 잦아들고 내 마음 깊은 그 곳에도 상념(想念)의 물줄기가 흘러내린다.

내겐 두 아들이 있다. 두 아들과의 세상에서의 첫 만남은 각기 사뭇 다르다. 큰 아이와의 만남은 시작부터 시련이었다. 난산(難産)의 난고를 장시간 겪은 후유증으로 아이는 무척이나 연약했다. 연약한 아이를 기르며 얼마나 수없이 어리석은 기도를 하였었는지… 이 어려움을 내게서 옮기어 달라고, 왜 하필이면 나냐는…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미련함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. 아이는 내게 인내와 순종, 그리고 겸손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큰 선물을 한아름 가져다 주었다. 고마운 아이!

그후 아이는 조금씩 지혜롭고 강건해져 가고 있다. 이에 반해 작은 아이는 첫 만남부터 내게 안식(安息)을 가져다주었다. 얼마나 고통 없이 편안하게 아이를 낳았는지 한 달이 지나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. 자라면서도 그러했다. 연약한 형을 돌보느라 늘 분주했던 터라 막둥이 어리광 노릇은 커녕 오히려 마음 쓰는 것이 부모 맏이 역이다. 나이에 비해 마음 씀이 기특은 하나 쓸데없는 부담감을 너무 많이 진 듯하여

안쓰럽고 미안하다. 그래도 어느새 자라 넓적한 등판을 수그리며 밤마다 무릎 꿇고 제 형과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,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했어도 혼자 외국에 나갔을 적에 아빠 엄마보다도 그 형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울었다는 아이. 나는 이 아이에게 무엇으로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! 그저 가슴 저밀 적마다 두 아이 맡기신 그 분께 무릎 꿇을 뿐.

어느새 차는 양수리에 다다른다. 차도 아래론 요 며칠 째 내린 비로 강물이 약간 불어 있다. 봄 빛깔로 어우러진 강변의 고요. 그 고요를 깨며 담담히 흐르는 물줄기 사이로 느닷없는 소용돌이. 자세히 들여다보니 제법 큰 돌부리가 바위 모양 솟구쳐 있다. 얌전히 흘러내리던 물도 장애물을 만나자 몇 번의 회오리 몸짓 반항. 그러나 곧이어 묵시(默示)의 깨달음을 얻은 듯 다시금 제 길로 흘러간다.

이렇게 흐르는 물은 지혜롭다. 흘러가다 돌부리나 턱이 있으면 비껴 지나간다. 주춤하지만 결코 맞서지 않는다. 누구에게도 겸손하다. 누구든지 포용한다. 물가에 서 있는 바위나 돌부리는 그 순간은 물줄기를 둘로, 셋으로 나누어 놓고 자기들이 이긴 것으로 착각할 지 모른다.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, 억겁(億劫)의 세월 속에 결국 물은 그들을 순화(醇化)시킨다. 그 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흐르는 물의 모습대로 바뀐 것을 알게 된다. 돌부리는 결국 흐르는 물의 조각품일 뿐이다. 강물은 그런 식으로 주위를 순화시키면서 그 기나긴 세월을 끝없이 흘러간다. 옛 시인의 말대로,

부진장강 곤곤래(不盡長江滾滾來)-다할 없는 긴 강은 니엄니엄 오놋다.

그 만큼 물은 지혜롭다.

강을 둘러 피어나는 5월의 산은 정말 아름답다. 산은 강을 품고 강은 산을 노래한다. 어느 누가 말했었지. "흐르는 물을 방해한다고 돌부리를 치우지 마세요. 아름다운 물소리를 못 듣게 될 테니까요." 어디선가 고운 선율의 평안함이 밀려온다. 내 마음 깊은 그곳의 물줄기가 노래하나 보다.

산도 있고 물도 있는 이 곳. 어느 현인의 말 대로라면 인자와 지혜가 함께 있는 이 곳. 나는 이 곳이 참 좋다.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. 물론 대화의 테마는 인자와 지혜, 산과 물, 바로 사랑 그리고 사람이 되어야겠지? 강 둑위의 철로로 기차가 달려온다. 자! 이제 뚜… 하는 기적 소리를 내며 힘차게 가는 저 기차처럼 나의 삶도 산과 강 사이로 조그만 발걸음을 내딛는다. 인내와 순종, 그리고 기다림의 지혜를 안고…. ♧